

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3년간 발전계획서(2024~2026년)

후보자 조 수 동 주요약력

現,

- 사회복지사(1급)
- 사회복지학박사(성신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)
- 사단법인 우리복지 이사장(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)
- 한국복지상담바리스타협회 및 한국파트너복지회장

前,
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(감사) 및 충북사회복지사협회(대의원)
- 한국시니어클럽(전국 협회장 및 도봉시니어클럽관장)
- 도봉·압구정·청평·제천 명락노인복지관(관장)
- 생명의전화·면목종합사회복지관(부장 및 관장)
- 라포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(소장)
- 한나원(양로원 총무)
-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(사무총장)
- KBS 및 극동방송 상담원 고정출연(2년간)
- 소외계층 대변지 저널24시(편집장) 및 7142Cho TV 운영
- 서정대 사회복지상담과 조교수



슬로건

‘약속’ 을 ‘생명’ 처럼 지키는.....,

여러분의 사회복지사

7_친 1_한 4_사 2_이 Cho_{표(?)}가 되겠습니다.


Rapport(친화관계)를 쉽게 표현한 멋진 숫자입니다.

사회복지사 조 수 동(7142cho@hanmail.net / 010-9789-7142)

우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? 협회장에 출마하면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을 하였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“**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하지 않겠습니다.**”입니다. 이 때문에 출마를 포기할 생각도 잠시 하였습니다. 왜냐하면 전국의 많은 협회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과연 절반이라도 이행하였을까? 라는 물음에 괜히 부끄러웠습니다. 1992년도에 관장이 공석인 모 복지관 부장 재직 시에 어렵게 시간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. 하지만 법인이 반대를 하였습니다. 심지어 다음 해에 관장 임명을 할 터이니 포기하라는 제안에도 먼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어 결국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.

하여 혹시라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기지 않으려고 ‘**현장 사회복지사의 자존심 지키기**’와 ‘**사랑스런 충북사회복지사협회 만들기**’ 라는 두 바퀴 이외의 정책 공약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. 대신에 선거운동을 협회의 문제점과 회원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당선과 함께 인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소위 메니페스토(manifesto) 방식으로 꼭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표 및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

끝으로 사회복지 인생의 마지막 계획으로 정년이 되면 관청이나 주변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자유의 몸이 되어, 협회장으로서 그간의 **충실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‘바른 소리’를 제대로 한번 하리라는** 소신에 따라 그 길을 가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

단 계	욕구파악 및 진단 단계(2024)	문제해결 및 욕구실현 단계(2025)	목표 달성 및 욕구충족 단계(2026)
사회복지사 자존심 지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당한 명함 갖기 및 바른소리 실천 운동 - 현장 복지사 중심의 강사 구성 및 맞춤형 보수교육 - 선구적인 벤처 마인드와 연구논문 작성 가능한 기관 - 사회복지사 처우개선(전문성 확보로 연봉제 또는 공무원 이상의 급여 목표) 등 		
사랑스런 총·사·협 만들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인(회원)에게 친절함으로 타지에서 배우러 오는 협회 - 어려울 때 달려가는 여러분의 사회복지사(협회장) - 사회복지사 고민상담 및 만남 전용 커피숍 개설(수익사업화) - 홍보대사 위촉 및 발전기금 조성(정년퇴직 기념 기부 및 예우) - 인수위원회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강화(위원 공개모집) - 지방협회 및 민관 연대 강화 - 기타 사업(충북에 시험장, 투명성 확보 등) 		